

내장산 영어 관광통역 안내원 선행 '훈훈한 감동'

정읍 내장산관광안내소 김소형씨, 배낭 잃어버린 영국 관광객에게 사비 털어 교통비 제공

정읍 내장산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영어 관광통역 안내원이 모든 소지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잃어버린 영국 관광객에게 사비를 털어 교통비를 제공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 감동을 주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바로 정읍 내장산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김소형 씨다.

의료관련 활동으로 잠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영국인 리암존스(Liam Jones)씨는 지난달 29일 단풍으로 유명한 명산 내장산을 찾았다.

겨울이 시작된 계절이지만 화창한 날씨 속에 산행 중이던 존스 씨는 조선왕조실록 이안 장소로 유명한 용굴암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메고 있던 배낭과 옷을 벗어 놓고, 잠시 땀을 식히며 휴식을 취했다. 내장산의 절경과 아름다움에 매혹된 나



자 배낭과 옷을 벗어놓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은적암까지 올라다가 여권, 신용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찾으러 서둘러 벗어놓은 장소로 내려갔지만, 배낭과 옷을 찾을 수 없었다.

휴대폰 하나 들고 마음을 애우며 한참 주위를 돌던 존스 씨는 심신이 고달프고 맥이 풀린 상태로 하산했고, 내장산 입구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찾았다.

근무 중이던 김소형 통역안내원은 존스 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 안정시킨 후, 영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장치안센터 경찰관과 함께 배낭을 분실한 용굴 앞 지점까지 다시 찾아 나서기도 했다.

끝내 분실물을 찾지 못해 아무것도 없던 존스 씨에게 영국대사관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본인의 사비로 건네주고 또 점퍼까지 제공하여 무사히 서울 대사관까지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후 존스 씨는 다시 내장산관광안내소를 찾아 받은 교통비와 점퍼를 돌려주고, 고속도로 돌아가서 업서를 보내왔다. "한국에서 배낭과 코트를 잃어버린 것은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었지만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당신과 동료직원 유미씨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고, 거듭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의 업서로 감사의 마음을 보내왔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사비를 털어 선뜻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연말 추운날씨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마음이 훈훈해 진다면, 내년 한해도 우리 주위에 이러한 미담이 넘쳐나는 따뜻한 기해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4월부터 정읍시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소형 씨는 평소에도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만족도 높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료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나누는 등 주위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모범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대, 완산구청 지역아동센터에 '라면기부' 사랑나눔 진행

전주대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완산구청에 라면 158상자(5,849개)를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8일 기탁된 6,000여 개의 라면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2~3개씩 사랑과 정성을 담아 모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또, 익명의 교직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손수 작성한 편지와 함께 현금 50만원을 추가로 전했다.

모인 라면들은 완산구청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대 이효인 총장은 "라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까지도 지역사회에 전달되어 따뜻하고 푸근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다"라며, "전주대의 작은 움직임으로 전북지역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기부 행렬에 동참한 학생들은 "평소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주위를 돌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라면 기부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는 2016년 1학기 1,000여 개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기부량이 꾸준히 늘어 현재까지 총 1만 5천여 개의 라면을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설천면에 지역사회계층 겨울나기 물품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19일, 무주군 설천면 사무소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물품 전달식에는 김병용 경영본부장과 김상선 설천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재단은 설천면 사무소에 쌀 600kg과 라면 60박스를 전달했으며, 설천면은 이 물품들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병용 경영본부장은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올 한해 '지역 소외계층 물품 지원' 외에도 '장애인 요양 시설 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 태권도원 초청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동진강낙농축협, 사랑의 연탄 3,800장 나눔 실천

김제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 김부호)은 19일 김제시와 공동으로 김제시의회 은주원 의장, 동진강낙농축협 김부호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19개 읍면동에 사랑의 연탄 3,800장의 나눔을 실천하였다.

김제 동진강 낙농축협은 2008년부터 조합원의 뜻을 모아 김제시랑 장학재단 1,000만원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어려운 지역청소년들을 지원하였으며 "나눔축산과 함께 하는 다문화 행사"에도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다문화 인식개선 제고에도 노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은 김제시 주민복지과와 연계하여 19개 읍면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추천받아 가구당 200장을 지원하였으며 금구면의 경우 조합원 20여명이 직접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김부호 조합장은 "연말 연시를 맞아 주위를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조합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더 많은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야간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지난 18일 고창터미널, 고창점통시장, 월곡 제일아파트 구간으로 유관기관 합동 야간 소방차 길터주기 집중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슬로건으로 야간 불시 출동으로 주야간을 구분없이 발생하는 화재 및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도착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상가 밀집지역 주요 차량정체 구간을 파악,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었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재난은 잠깐의 방심으로 발생시간이 예측불허로 평소 주야간 구분없이 훈련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0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969/92 전주신문(주) 222-48 (서노출물)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6674	남원지사 68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64
영지사 010-9845-9355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82-3896	정읍지사 538-3787
	교신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해당화 로타리클럽-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행안면에 연탄 1600장 기부

부안 해당화 로타리클럽(회장 이점숙)과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서서 연탄을 기부하여 행안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세대 중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8세대에게 각 200장씩 총 1600장의 연탄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따뜻한 온기를 담아 정성스럽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연탄 200장을 전달받은 김모(70세)씨는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하루에 연탄 3~4장씩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할 길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연탄을 나눠줘서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고마워 했다. 연탄기부에 이어 또 다른 온정의 손길은 부안읍교회에서 전해왔다. 부안읍교회에서 모금한 성금 120만원을 관내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 3세대에게 40만원씩 전달했으며, 부안읍교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잘 전달돼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철진 기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임실지회장 정창훈씨, 이웃돕기 성금 전달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임실지회장 정창훈(59)씨가 지난 18일 오수면사무소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창훈씨는 2015년부터 오수면행복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기탁자의 의견에 따라 2019년 오수면행복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백종완 오수면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